

여성의 이혼선택 요인에 관한 종단 연구: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Longitudinal Study on the Major Factors Affecting Divorce Choices among Women:
Focused on Survival Analysis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박수선*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박태영**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Su Sun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Park, Tai Yo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의 결혼과 이혼양상을 가족전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두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기반한 생활복지 차원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한 종단 연구를 시행하였다.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각 요인들이 이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 파악한 결과 모든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 이혼, 여성가족패널, 생존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ocial work practice in understanding marriage and divorce as transitions and in helping women make meaningful decisions on whether to stay or leave the marriage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impact women's divorce decision making over time. This is a longitudinal study that used survival analysis by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panel data. Finally, cox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impact of each factor on divorce decision making, and accordingly, all regression models were appropriate for analysis.

Key words: Women, Divorc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Panel, Survival Analysis

*본 원고는 2020년 8월에 출간된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논문명: 생존분석을 활용한 여성의 이혼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을 부분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

**주저자: 박수선(sunybono@seowon.ac.kr), <http://orcid.org/0000-0002-2617-4637>

**교신저자: 박태영(tpark@ssu.ac.kr), <http://orcid.org/0000-003-1696-1597>

I. 서론

오늘날의 가족은 자발적인 개인의 의사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양식(김혜영, 2006)으로, 과거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오던 규범적 성격이 강한 가족주의 중심의 가족이 아닌 개인중심의 선택적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권복순·김태자, 2008; 김소이, 2018; 김승권 외, 2005; 정윤경·최지현, 2010). 김문조(2016)의 ‘디지털시대 일상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상시적, 안정적, 동질적, 실제적인 결속형 가족에서 가변적, 이질적, 관념적인 특성을 지닌 ‘교량형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적 굴레나 인식적 통념을 넘어서 비혈연적 가족들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과 특성의 변화 양상 중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혼의 증가이다. 현대의 부부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겪으며, 이혼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민녀·채규만, 2006).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70년에는 0.4건이었던 수치가 2018년은 2.1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조이혼율이 0.1건 증가한 총 11만 8백 건의 이혼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대비 2천 1백건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있지만 이혼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존재하고, 이혼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며 생활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이혼양상의 특징으로 ‘성(gender)을 둘러싼 쟁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여성 주도의 이혼을 급증을 들 수 있다. 이혼은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이혼 여성은 대체로 자녀양육을 맡게 되고(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외국에 비해 이혼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김은정, 2019),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더 불행한 일로 여겨진다(김은정, 2019). 한국 가정법률상담소(2020)에서 발간한 ‘2019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이혼상담은 총 4천 783건으로 이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상담건수가 많았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여성 주도의 이혼을 급증은 결혼생활의 안정을 인생의 목표로 두었던 여성들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이동을 나타낸다(김유경 외, 2014). 이러한 양상은 가족이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중심 가치관이 한국 가족의 특징 중 하나인 강한 가족주의와 혼재되어 행위적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승권 외, 2005).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생

활 및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노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 인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윤경·최지현, 2010). 가정내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남녀차별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보유한 남성과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려는 여성과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가족 문제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곽배희, 1993).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했던 우리사회는 이혼으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소를 가족위기로 볼 것인가 혹은 가족전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성정현·양심영, 2006). 이혼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혼행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체계 자체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는 질적으로 변화를 거치게 되므로 이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전이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이혼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혼의 원인보다는 이혼의 과정과 결과라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곽배희, 1993). 이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이혼을 하나의 일탈로 규정하였으나 1970년대부터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가되면서 불행한 결혼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자기발견의 기회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최근에는 이혼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며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노진숙, 2013).

이렇듯 이혼이란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의 소산이 누적된 결과이며, 심리적 이혼이라는 개념은 이혼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행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혼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횡단 자료에 기초한 이혼여부 연구는 해당시점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로 결혼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지속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홍백의 외, 2009).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이혼 연구들은 개인의 교육수준과 연령, 경제적 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차원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이혼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김진원(2019)은 이혼주체의 국내 연구 대부분이 소수의 사례에 대한 탐색적인 질적 연구 혹은 횡단 자료를 사용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이혼 전후의 주요 변인들의 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 표본 중도탈락으로 인해 이혼을 경험한 표본은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Fine, Ganong & Demo, 2010), 대규모의 반복 조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변화순, 2006). 따라서 대규모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다차원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시계열적 자료가 축적된 이혼자들의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김진원,

2019).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결혼유지자와 이혼자를 함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변인에 따른 두 집단의 분명한 차이를 보고자 하는 연구(김진원, 2019; 노진숙, 2013; 이무영·이소희, 2003; 이현송, 1997; Lee & Bumpass, 2008)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해 이혼여부를 포함하여 결혼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종단 연구(De Graaf & Kalmijn, 2006; Kalmijn, De Graaf & Poortman, 2004; Poortman & Kalmijn, 2002; Teachman, 2002)가 있다. 국내의 이혼을 주제로 한 종단 연구들은 이혼전후의 소득변화를 파악하거나(박현정·정익중, 2012), 생활만족도 변화를 비교하는 조사(김진원, 2019; 박현정, 2013)들로 결혼생활 전반에 따른 이혼선택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이혼 전후의 주요 변수에 대한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종단적 방법을 활용한 생존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홍백의 외(2009)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를 대상으로 별거와 이혼집단을 함께 조사하였고, 부부관계나 가족 내 갈등 및 대처방법과 같은 주요한 가족적 요인이나 가족가치관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생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선택에 이르는 요인을 밝혀내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종단 연구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결혼의 속성과 그 결혼에 관여된 개인에게 주는 독특한 의미 둘 다 고려해야 한다(김혜영,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국내의 이혼 주제의 종단 연구(박현정·정익중, 2012; 박현정, 2013; 김진원, 2019)에는 이혼 선택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거의 없다. 이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안정이나 일-가정양립의 측면뿐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가족안에서의 친밀성 정도, 부부관계의 질과 같은 가족적 요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과 같은 가족생활에서 파생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생활 과정에서 이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생존분석 방법(송경일·최중수, 2013; 채구묵, 2018)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여성의 이혼 주도 상황과 이혼 주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의 요구에 따라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결혼생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을 대상으로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결혼과 이혼양상을 가족전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두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기반한 생활복지 차원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혼 영향 요인

이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이혼 당사자와 가족과 그들의 환경을 포함한 각 체계의 구조 혹은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소득의 상실, 역할수행 문제와 함께 극도의 정서적 고통 및 자녀에 대한 죄의식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정적인 사회관계망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김경순, 2010; 변화순, 2006; 송욱, 2012; 정진영, 1993; Amato, 2000; Lebow, 2015; Patel, 2000).

이혼의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이혼 원인은 남편의 폭력 행사, 외도,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부부갈등, 음주, 도박, 가정 폭력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들보다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 역할 갈등, 감정의 존중, 가치관과 성격차이,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 등이 이혼의 원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영희·정선영, 2007; 김정옥, 2011). 그렇다고 전통적인 이혼 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옥선화, 남영주와 강은영(2006)의 연구에서 보면 여전히 가정 폭력, 음주, 도박, 외도, 시댁과의 갈등 등과 같은 전통적 이혼 원인도 존재한다.

또한 이혼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본 연구(심수명, 2006)도 있는데,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 향상, 그리고 개인주의 증대를 이혼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관계안에서의 정서적 욕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강박성 등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공성숙(2008)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부부관계나 가족내 갈등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이혼의 원인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혼 증가 양상에 대한 특징을 오지혜(2015)는 가정내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존에 다수 이루어진 부부갈등이나 가정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혼 원인의 분석 뿐 아니라 사회구조나 법과 제도 변화와 같은 가정 외부 요인들에 의한 이혼율의 변화도 함께 살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가족내외 요인들을 모두 살펴보고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간과하여 누락되지 않으며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나타내지 않은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경애(2000)와 정

기원(2004)의 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이혼에 대한 거시적 구조와 시대적 맥락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표본의 문제, 분석 단위와 수준의 문제, 그리고 충분치 않은 자료의 문제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오지혜, 2015).

이혼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가족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 종단적 접근은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결혼생활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가정내의 변화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적 선택의 증가로 인한 이혼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족이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한국 가족의 특징 중 하나인 강한 가족주의와 혼재되어 개인의 의식차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가족가치관의 내부적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별, 계층별, 세대별 가족개념 및 의식분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결과적으로 가족의식의 분화와 다양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져 잠재적으로 가족가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가치관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김혜영·김상돈·박선애, 2012).

이는 여성이 주도하는 이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재의 이혼실태와도 연관된다. 광배희(2001)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들어오면서 남녀 모두 대화단절, 성격차이 등 부부갈등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는 1970년대 증가한 부부갈등이 이혼상담 증가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남성에 비해 최대 5.9배를 차지할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여성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간차원의 맥락에서 결혼생활 특성을 지지하는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부부 및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가족적 요인, 그리고 가족가치관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모두 사용하여 이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이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여성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우선 연령을 들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이혼의 원인이 다소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홍백의 외, 2009). 정민자, 노현미와 하채남(2015) 연구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이혼 요인을 조사한 결과 30대의 경우 외박,

원가족과의 미분리, 성과 관련된 갈등, 역기능적인 대화 등이거나, 40대는 경제적 무능, 가정 폭력, 자녀 양육 회피 등이 포함 되어 있고, 50대에는 잦은 거짓말, 고통 분담의 회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의 지속적인 증가가 특징인 현대 사회의 이혼 양상으로 인해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혼연구(김소진, 2009; 문정화 외, 2014)뿐 아니라 40대 이상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혼 연구(김은정, 2019; 김지혜, 2008; 김은정·강갑원, 2017; 송옥, 2012)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연령변인과 이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한편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고 부부간 역할갈등이 적으며(박은옥, 1997), 배우자 지지가 높아져서(이인숙, 2000)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수 역시 결혼생활 유지와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혼은 결혼생활 초기와 말기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Bruze, Svarer & Weiss, 2015), 결혼 4년 이내 부부와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이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영, 2018). 결혼 7년 이하의 부부생활 초기적응 시기와 결혼연수 14년차 이상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Gottman & Levenson(2000)의 연구결과는 결혼 초와 결혼 중반이후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 측면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도출한다.

부부간의 연령차에서는 부부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여성이 느끼는 결혼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이성희, 1989; 김은경, 1998). 부인의 연령이 남편보다 5년 이상 연상일 때에 부부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혼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eachman, 2002).

동거 자녀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발달단계별 자녀의 유무를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혼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광배희, 1993; 김혜련, 1993; 이무영·이소희, 2003; 이현숙, 1997), 한경혜와 김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실제 이혼한 부부들이 가장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문이 자녀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혼과정에서 자녀가 존재하며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부담과 노동시장 참여에 부담을 느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이혼 후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김혜영 외, 2008), 삶에 대한 동기와 의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문현숙·김득성, 2000) 자녀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Poortman & Kalmijn(2002)에 의하면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가 자녀가 없거나 13세 이상일 경우보다 이혼 위험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갈등정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이지원, 2003).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이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관적이나(김진원, 2019), 연구에 따라 사회적 맥락이나 현대적 가치관의 반영여부가 달라져서 연구자의 해석에 차이가 나는 요인도 존재한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낮아지지만(이무영·이소희, 2003; 이현승, 1997; De Graaf & Kalmijn, 2006), 최근 연구일수록 교육수준이 여성의 이혼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Kalmijn et al., 2004), 여성의 교육수준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오지혜, 2015). 교육수준과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높은 교육수준은 의사소통시 합리적 사고와 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정순, 1991).

가구소득에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양상이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혼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성희, 2003; 이무영·이소희, 2003; Lee & Bumpass, 2008), 조성희(1999)는 실직가족이 소득의 하락과 더불어 가족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소득과의 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 전·후 소득이 감소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결과(박현정, 2012)가 보고된다. 이현승(2008)은 이혼 후의 소득과 교육연수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진 못하였으나 이혼 전 소득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재원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부부관계가 해체될 수 있다(이옥수, 2017).

직업이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자립능력이 생기면서 힘든 가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며(노진숙, 2013; Poortman & Kalmijn, 2002), 이혼 전·후 가구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완, 2010; 김혜영 외, 2008; 이현승, 2008). 또한 여성이 이혼과정에서 일 자리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정서적 안정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 2006).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혼여성 취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의 소홀 그리고 남편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한 이중부담과 역할한계의 불분명이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생활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영역의 확대, 가사일로부터의 해방을 들 수 있다(오지혜, 2015). 종교의 경우 이혼 결정여부에 개연성을 가질 수 있지만(김진원, 2019), 국내 연구에서 종교를 이혼결정요인으로 다룬 경우는 소수인데, 종교가 있을 때 이혼발생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무영·이소희, 2003).

2) 가족적 요인

부부갈등과 대처방법은 이혼을 발생시키는 가족 관련 요인으로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대처방법(이옥수, 2017),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외의 연관성(김영희·정선영, 2007; 이선미·전귀연, 2001; 조유리·김경신, 2000)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 등을 조사한 이옥수(2017) 연구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40-50대가 30대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적극적 대처는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 대처 방식은 3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 대처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과 결혼연수는 부부관계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가족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요인의 부부갈등과 대처방법은 부부간 상대적인 반응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로 부부간 의사소통을 들 수 있는데, 부부관계 갈등영역에서 부부 상호간 대화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안정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이옥수, 2017). 의사소통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요소로 국내 의사소통 유형을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역기능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순, 1991). 부부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이나 태도,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일어나고 미해결된 갈등이 부부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문제를 심화시킬 때, 부부간에 긴장이 유발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채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되면서 감정이 더 격해지고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워지게 된다. Gottman(1994)은 상대방에 부정적인 자극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상황이 오면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감소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할 원동력이 약화되고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역기능적인 가족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갈등 유무가 가족 및 부부관계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이혼이나 별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문제를 부부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호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때 결혼만족도와 부부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Gottman, 1993)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 정도'(김명자, 1985)이며,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이 결혼생활 시간차원에 따라 인식하는 개념으로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한 선호 태도를 의미한다(Roach et al., 1981). 결혼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령은 결혼연수 및 세대관 차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특히 이는 국내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유리·김경신, 2000). 결혼만족도는 결혼기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와 결혼 초 상승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다가 결혼 후기에 다시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조유리·김경신, 2000). 그러나 2017년 이혼한 부부의 통계결과에서 결혼 4년 이내의 신혼이혼과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김순영, 2018)와 비교해 볼 때 결혼안정성이 강조되었던 과거에 비해 개인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특히 노년층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선아, 남경아와 정향인(2006)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혼여성들의 우울정도는 남편과의 관계, 역할에 대한 만족도 등 부부관계 속성의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남편에 대한 인식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상대가 비난, 방어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인지할 경우 부부갈등을 악화시키게 되고 이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river et al., 2003), 여성이 남편과의 의견교환이나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 남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부부갈등은 줄어들고 이혼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Gottman & Driver, 2005). 일 중심의 사회에서 부부가 상호간의 만족과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가활동으로 부부 동반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김정운과 이장주(2003) 연구결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 등(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부부동반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사회적 요인

여성의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에 대한 인식을 주도하고 있는 가족가치관을 들 수 있다.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현대사회에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수진, 1998; 유계숙·유영주, 2002; 박수현, 2003), 이는 이혼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전통주의 가치관이 약할수록 이혼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에리, 2002; 김성희, 2003). 가족가치관을 개인주의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으로 나누어 살펴본 오지혜(2015)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

주의 가치관은 이혼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가치관 중 결혼과 이혼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김승권, 2014; 김혜영 외, 2012) 남녀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을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며, 이혼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의식 차이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을 '여성의 이혼'과 '남성의 이혼'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Amato & Rogers, 1997; Heaton & Blake, 1999; 곽배희, 2001)을 지지한다. 결혼생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차이를 이혼과 연결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의 성역할과 관련된 가치관 차이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김명자·권오실, 1996; 최혜경·노치영, 1994) 여성의 가족가치관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상호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현동·김명희, 2011).

가족가치관 중 부부, 자녀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김영란(2017)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사회는 세대 간의 부양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부양형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1988년 당시 국민의 약 89.9%가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 있다'라고 답하였으나, 15년이 지난 2016년 기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3%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2%에서 4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가치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안윤숙 외, 2016), 박소진(2016)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과 자녀, 이혼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관에 대해서는 전통성이 약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지만,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에서 전통성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석만 외(2006)의 연구에서 현대적 가족가치관이 강한 기혼직장 여성은 직장가정의 역할전환에서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혜영(2001)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사회변화에 따라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강한 문화적 규범으로서 여전히 한국인의 가족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혼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을 포함한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을 심도있게 분석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고 인식할수록 부부간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강신성, 2014). 기혼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신건강 수준

이 높았으며(김순안·김승용, 2011; 안윤숙 외, 2016), 신체적 건강은 우울의 변화계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석임·전희정, 2013).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이혼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성낙일·조동혁, 2015), 가구소득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이성희, 198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볼 때,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단차원적인 변수들을 활용한 조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혼 전보다는 이혼 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변수를 구성하고, 결혼 후 이혼 전 시점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중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가족패널을 선택한 이유는 이 패널이 여성과 가족의 현재를 대표하는 자료로 가족가치관의 변화, 부부갈등과 대처방법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결혼생활 특성 및 변화양상을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이혼을 주제로 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당사자와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성의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가치관 등의 가족생활 영역과 직장과 관계된 경제활동 영역, 그 외 일상생활 영역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가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가족패널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문문항의 추가와 삭제 비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부터 시행한 3차 조사부터 새로 추가된 변수와 문항이 다수 존재하고, 격년마다 조사를 시행하여 동일한 조사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여성가족패널 조사 1차부터 7차까지 모든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중단적 연구방법에서는 차시별 동일한 변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이 지속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연구시점 당시 데이터 공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7차시를 제외한 3차시부터 6차시까지의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에 따른 여성의 주요 요인에 의한 결혼생활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의 이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심리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에 사용되는 대상은 여성가족패널의 3차시(2010년)부터 6차시(2016년)까지의 자료 중 3차시 조사에서 초혼으로 이미 결혼한 여성으로 참여한 기혼여성이 기준이 된다. 3차시부터 6차시까지 계속 이 조사에 참여한 기혼여성 중 조사 차시 사이에 이혼을 선택한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6차시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와 구분하였다.

조사기간 내 모든 분석은 해당 사례의 결혼생활이 마지막으로 관찰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중단조사에서는 유효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분석방법 특성에 따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이혼을 선택하는 결혼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유지 집단과 이혼선택 집단을 결혼생활에서의 생존과 이탈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설정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통해 기혼여성이 이탈한 이혼을 선택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생존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3차 조사 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혼여성 6,415명 중 결혼연수 변수를 미응답한 223사례를 제외하고 6,192사례가 1차 자료로 선별되었다. 본 조사가 중단연구이기 때문에 조사차시에 따른 자료가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패널 자료에서는 3차 년도 시작시 기혼여성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 조사기간 동안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나 2차시 이상 미응답을 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5차시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차시에 미응답한 경우, 이혼을 선택한 사례에서 전차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본 조사에는 분석결과의 명료성을 위해 이러한 사유를 가진 1,061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131사례가 선별되었다. 조사 자료의 상태에 따른 제외 사유와 사례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1차 선별된 5,131사례에서 본 조사에 필요한 최종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해 4차시부터 매 차시마다 사별, 별거 등 이혼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결혼생활에서 이탈하는 사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혼여성이란 별거상태를 제외하고 이혼상황에 놓인 경우만을 제시한다. 일부 연구들(박현정, 2012; 이현송, 2008)에서 별거와 이혼을 합쳐서 결혼유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결혼해체에 별거가 포함될 수 있지만 별거와 이혼은 엄연히 다른 결혼상황으로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차시별 조사자료 상태에 따른 조사대상 제외 사유 및 사례수

(단위: 명)		
제외사유	차시 및 사유	탈락자 사례수
조사기간 전체 미응답	4차 이후 미응답자	424
	4,6차시	30
	4,5차시	26
2차시 이상 미응답	5,6차시	298
결혼생활 유지시 최종차시 미응답	6차시 미응답자	277
이혼선택시 전차시 미응답	5차시 이혼 선택자	3
	6차시 이혼 선택자	3
총 탈락 사례수		1,061

또한 본 연구자는 이혼이 두 번째 이상으로 조사되거나 조사기간 내에 재혼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재혼은 초혼과는 다른 환경적 맥락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혼 후 이혼한 경우 역시 초혼 이혼과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조사시점에서 결혼생활 상태에 따라 탈락된 사례 수와 탈락자를 제외한 유효한 사례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시점기준 결혼상태에 따른 탈락 및 유효 사례수

(단위: 명)			
기준 시점	탈락자 사유	탈락자 사례수	탈락자 제외 유효 사례수
4차	사별	68	5,063
	사별	76	4,987
5차	재혼 (4차년도 이혼자)	1	4,986
	사별	71	4,915
6차	재혼 (4차년도 이혼자)	2	4,913
	최종 사례수	218	4,913

다음은 최종 분석 대상인 4,913사례 중 3차시에 초혼으로 결혼한 여성들 중에서 2016년 6차시 조사까지 해당 조사를 지속적으로 응답한 대상자 중 조사간격 사이에 첫 번째 이혼을 한 경우만을 선별한 것이다. 즉, 이전 차시에서는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에서 다음 조사 차시에서는 이혼으로 변경된 사례들만을 선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자료선별 기준에 따라 이혼을 선택한 경우는 총 86사례로 구체적인 사례 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기준시점에 따른 이혼 사례수

기준시점	이혼 사례 수
3차-4차	28
4차-5차	20
5차-6차	38
총계	86

3.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이혼을 선택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관련 이론과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혼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단, 주요 변수 선택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변수들 중에서 연구자가 분석 자료로 선택한 차시들에 해당하는 여성가족패널 자료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주요변수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이혼 여부	이혼 선택 가능성
	연령	연령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결혼연수	결혼일로부터의 연수
	부부연령차	남편의 연령 - 부인의 연령
	종교	종교 없음, 종교 있음(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독립변수	개인적 요인
독립변수	여성 경제활동 여부	최근 1개월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남편 경제활동 유무	1주일 이내 수입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경제활동 수행 유무 구분: 일자리 없음, 일자리 있음
	동거 자녀	자녀 유무 및 자녀가 있는 경우 발달단계별 표시 구분: 자녀없음,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균등화소득	연간 가구 소득 총액/√가구원수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가족적 요인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정도 점수(단일문항)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4점 척도) 문항구성: 남편과의 대화정도, 견해의 유사성, 성관계 만족도, 남편에 대한 신뢰도
	부부동반활동 수준	지난 한달 동안 부부동반 여가활동 빈도 (4점 척도 -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한달에 1번의 4단계로 빈도 표시) 문항구성: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 신체활동(산책, 등산 등)
	부부갈등요인	지난 한달 동안 부부갈등 요인 유무와 갈등 순위 문항구성: 그런 경우 없음, 경제적 문제, 자녀육아 및 교육 문제, 기타 갈등 문제
	부부갈등 대처방법	부부갈등시 사용하는 대처방법(5점 척도) 문항구성: 회피(1문항), 이성적·합리적 대처(1문항), 언어적·신체적 폭력(3문항)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 점수(단일문항, 5점 척도)
심리사회적요인	주관적 경제수준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 점수(단일문항, 5점 척도)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4점 척도) 문항구성: 전통적 가족가치관(5문항), 개인주의 가족가치관(9문항)
	가족부양인식	부모의 가족부양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4점 척도) 문항구성: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 연로한 부모에 대한 부양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이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이혼선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혼여부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중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1', 연구기간이 종료 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를 '0'으로 기록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연수, 부부연령차, 종교, 여성 경제활동 여부, 남편 경제활동 유무, 동거자녀, 균등화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남편에 대한 인식, 부부동반활동 수준, 부부갈등 요인, 부부갈등 대처방법이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가치관, 가족부양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의 선택 요인을 파악하고 결혼 상태와 변수의 특성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생존시간을 분석하여 대상이 속한 집단전체의 생존경험을 요약하는 연구방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¹⁾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도구로 SPSS 18.0을 사용하였다.

1) 생존분석이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으로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모집단에서의 생존시간 분포를 알아 보며, 추정된 생존함수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두 집단의 생존율에 차이가 있다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송경일·최종수, 2013).

우선 조사대상인 기혼여성의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시간과 주요 변인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표(Life-table) 분석을 실시하였다²⁾. 구체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생명표분석 방법 조건에 적합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결혼생활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둘째,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콕스회귀분석(Cox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콕스회귀분석은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가 많은 경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적합한 분석법이다³⁾.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각 모형별 적합도를 확인하고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종적으로 파악하였다.

2) 생명표 분석은 생존의 경우를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생존분석의 한 방법으로 관찰의 시작과 종료가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사건의 발생이나 중도절단 발생은 완전한 무작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대상자 관찰이 일수나 개월, 연도와 같은 의미 있는 간격으로 측정되었을 때 가능하며, 최소한 표본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송경일·최종수, 2013).

3) 콕스회귀모형은 t시점에서의 로그(log) 위험함수를 여러 설명변수들의 선형식으로 표현한다. 즉, 만약 p개의 설명변수가 있는 콕스 모형에서 i번째 사례의 설명변수 값이 $x'_i = (x_{i1}, x_{i2}, \dots, x_{ip})$ 이고, 회귀 모형 계수가 $\beta = (\beta_1, \beta_2, \dots, \beta_p)$ 이라면 콕스 모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h_0(t)$ 는 기저위험함수를 의미한다(채구목, 2018)

$$\begin{aligned}
 hi(t) &= h_0(t) \cdot \exp(\beta' xi) \\
 &= h_0(t) \cdo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p x_{ip})
 \end{aligned}$$

IV. 연구 결과

1. 결혼유지 집단과 이혼선택 집단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여성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를 결혼유지 집단으로, 이혼을 결정한 경우를 이혼선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체 집단과 함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전체 조사 대상 중 40대가 1,778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01명(28.5%), 50대 1,319명(26.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지 집단은 전체 조사 대상과 동일하게 40대가 가장 많으며, 60대와 50대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혼선택 집단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선택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와 다르게 60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이혼이 19명(22.1%)으로 40대 35명(40.7%), 50대 23명(26.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선택 집단은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고등학교 졸업이 1,960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우가 1,555명(31.7%), 대학교 졸업이상이 1,397명(28.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결혼유지 집단 중 고등학교 졸업은 1,905명(3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이하 1,544명(32.0%), 대학교 졸업이상이 1,377명(28.5%)으로 나타났다. 이혼선택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이 55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상이 20명으로 23.3%를 차지하였다.

셋째, 결혼 연수 변수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중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집단이 3,518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806명(16.4%),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가 548명(11.1%), 10년 미만인 경우는 41명(0.8%)으로 나타났다. 결혼유지 집단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가 3,474명(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782명(16.2%)으로 나타나 결혼생활 20년 이상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혼선택 집단은 결혼 연수 20년 이상과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 각각 51.2%, 27.9%로 두 구간을 합치면 약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여성 입장에서의 조사한 부부간 연령차는 전체를 보면, 남편이 1-5살 연상인 경우가 3,003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 10년 이하 연상인 경우가 935명(19.0%), 동갑인 경우가 561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지 집단과 이혼선택 집단 모두 남편이 1-5살 연상인 경우가 61.4%와 49.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유지 집단은 남편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연상인 경우가 923명(19.1%),

동갑이 548명(11.4%)을 나타낸 반면, 이혼선택 집단은 남편이 1년에서 5년 이하 연하인 경우가 14명(16.5%), 동갑인 경우 13명(15.3%), 6년 이상 10년 이하 연상이 12명(14.1%)으로 나타나 연하집단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구간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섯째, 종교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무교이거나 기타인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유지 집단(44.7%)과 이혼선택 집단(38.4%) 모두 무교이거나 기타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변수에서 전체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2,856명(5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전업주부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명(40.9%)으로 나타났다. 결혼유지 집단에서는 취업자가 2,796명(57.9%), 비경제활동인구가 1,983명(41.1%)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선택 집단에서는 취업자가 60명(69.8%), 비경제활동인구가 25명(29.1%)으로 나타나 취업자의 이혼선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곱번째, 남성 경제활동 유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3,957명(80.6%),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950명(19.4%)으로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결혼유지 집단과 이혼선택 집단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각각 80.7%, 75.0%로 전체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덟번째, 동거자녀 변수에서는 전체적으로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가 있는 경우가 2,151명(43.8%), 성인기 자녀만 있는 경우가 2,700명(55.0%)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62명(1.3%)이었다. 집단별로 자녀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면, 결혼유지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비율과 비슷하게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가 있는 경우 43.5%,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55.4%로 나타났으나, 이혼선택 집단에서는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가 있는 집단이 61.6%,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가 30.2%로 나타나 구간별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상과 이하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두 집단 모두 동일한 2,452명(50%)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결혼유지 집단에서는 구간별 비율이 49.7%와 50.3%로 유사하게 나왔으나 이혼선택 집단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집단이 67.4%, 중위소득 50%이상 집단이 32.6%를 차지하여 구간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2. 여성의 시간과 요인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1) 관찰시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추이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 변화가 관찰시점인 2년 주기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명표(Life-table)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X축 시

〈표 5〉 결혼유지 집단과 이혼선택 집단의 개인적 요인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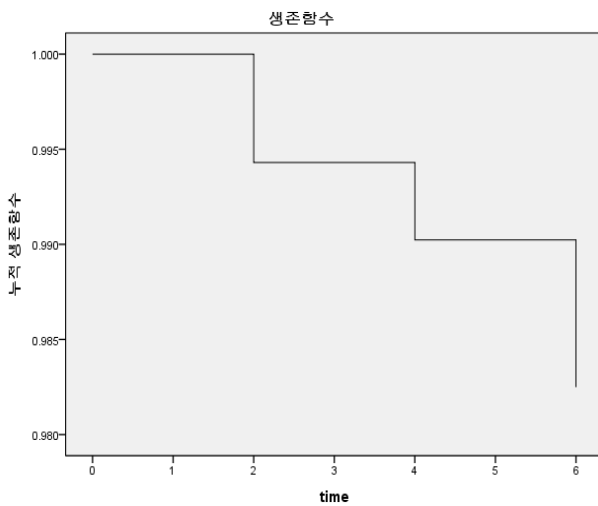
구분	전체	결혼유지 집단	이혼선택 집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20대	4(1)	1(0a/.0b)	3(3.5/.1)
	30대	411(8.3)	392(8.1/8.0)	19(22.1/.4)
	40대	1,778(36.2)	1,743(36.1/35.5)	35(40.7/.7)
	50대	1,319(26.8)	1,296(26.8/26.4)	23(26.7/.5)
	60대 이상	1,401(28.5)	1,395(28.9/28.4)	6(7.0/.1)
	전체	4,913(100.0)	4,827(100.0/98.2)	86(100.0/1.7)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555(31.7)	1,544(32.0/31.4)	11(12.8/.2)
	고등학교 졸업	1,960(39.9)	1,905(39.5/38.8)	55(64.0/1.1)
	대학교 졸업 이상	1,397(28.4)	1,377(28.5/28.0)	20(23.3/.4)
	전체	4,912(100.0)	4,826(100.0/98.2)	86(100.0/1.7)
결혼 연수	10년 미만	41(8)	31(.6/.6)	10(11.6/.2)
	10~15년 미만	548(11.1)	540(11.2/11.0)	8(9.3/.2)
	15~20년 미만	806(16.4)	782(16.2/15.9)	24(27.9/.5)
	20년 이상	3,518(71.6)	3,474(72.0/70.7)	44(51.2/.9)
	전체	4,913(100.0)	4,827(100.0/98.2)	86(100.0/1.8)
부부 연령차 ⁵⁾	6년 이상 연하	17(3)	15(.3/.3)	2(2.4/.0)
	1~5년 연하	301(6.1)	287(5.9/5.8)	14(16.5/.3)
	동갑	561(11.4)	548(11.4/11.2)	13(15.3/.3)
	1~5년 연상	3,003(61.2)	2,961(61.4/60.3)	42(49.4/.9)
	6~10년 연상	935(19.0)	923(19.1/18.8)	12(14.1/.2)
	11년 이상 연상	93(1.9)	91(1.9/1.9)	2(2.4/.0)
	전체	4,910(100.0)	4,825(100.0/98.3)	85(100.0/1.7)
종교	무교 및 기타	2,191(44.6)	2,158(44.7/43.9)	33(38.4/.7)
	개신교	1,031(21.0)	1,007(20.9/20.5)	24(27.9/.5)
	천주교	375(7.6)	367(7.6/7.5)	8(9.3/.2)
	불교	1,316(26.8)	1,295(26.8/26.4)	21(24.4/.4)
	전체	4,913(100.0)	4,827(100.0/98.2)	86(100.0/1.7)
여성 경제활동여부	취업자	2,856(58.1)	2,796(57.9/56.9)	60(69.8/1.2)
	실업자	49(1.0)	48(1.0/1.0)	1(1.2/.0)
	비경제활동인구	2,008(40.9)	1,983(41.1/40.4)	25(29.1/.5)
	전체	4,913(100.0)	4,827(100.0/98.2)	86(100.0/1.7)
남성 경제활동유무	일자리 있음	3,957(80.6)	3,897(80.7/79.4)	60(75.0/1.2)
	일자리 없음	950(19.4)	930(19.3/19.0)	20(25.0/.4)
	전체	4,907(100.0)	4,827(100.0/98.4)	80(100.0/1.6)
동거 자녀	자녀없음	62(1.3)	55(1.1/1.1)	7(8.1/.1)
	양육 및 교육기 자녀	2,151(43.8)	2,098(43.5/42.7)	53(61.6/1.1)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	2,700(55.0)	2,674(55.4/54.4)	26(30.2/.5)
	전체	4,913(100.0)	4,827(100.0/98.2)	86(100.0/1.8)
균등화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2,452(50.0)	2,394(49.7/48.8)	58(67.4/1.2)
	중위소득 50%이상	2,452(50.0)	2,424(50.3/49.4)	28(32.6/.6)
	전체	4,904(100.0)	4,818(100.0/98.2)	86(100.0/1.8)

a=행(집단 내)의 백분율, b=전체 백분율

간을 기준으로 관찰시작 시기인 3차 조사를 0으로 보았을 때 2년 후 4차 시기, 4년 후 5차 시기, 6년 후 6차 시기의 결혼생활 지속을 나타내는 누적 생존율이 조사대상자의 이혼 선택으로 인해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⁴⁾

- 4)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생존율이 높고 위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연구자가 선정한 여성가족패널 자료 총 4,913명 중 관찰기간 내 이혼한 여성이 86명이기 때문에 이혼선택을 나타내는 위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 5) 〈표 5〉의 부부연령차 변수에서 각 집단은 조사대상자인 여성기혼자의 입장에서 본 남편과의 연령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가장 마지막 조사시점인 6차 시기의 누적 생존율이 가장 많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이혼을 선택한 여성이 6차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러나 조사대상의 관찰기간이 6년 밖에 되지 않고 종단 연구에서 지속적인 다수의 이혼자 집단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6차 조사시기의 가장 큰 생존율 저하 현상과 본 연구의 관찰시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최근의 이혼율 동향과 관련시켜 패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림 1〉 관찰시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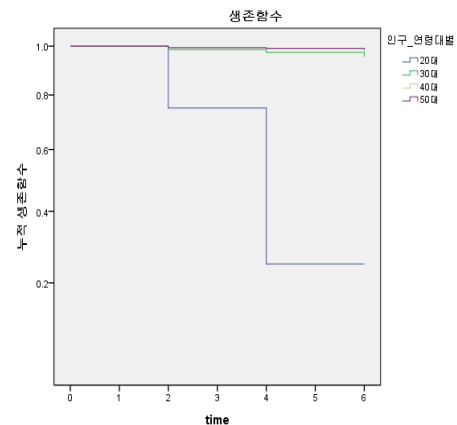
2) 요인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추이

조사대상자의 요인별 특성에 따라 관찰시점의 결혼생활 변화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표 분석을 시행하였다. 생명표 분석의 특징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관찰기간 동안 초기 변수 값의 고정성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어 집단간 구분은 비교적 명확한 개인적 요인 변수들 중에서 결혼생활 변화추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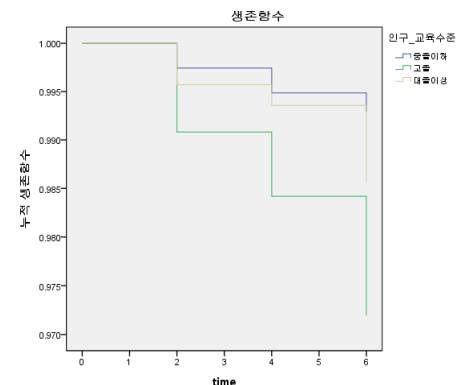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결혼생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8.880$, $df=3$, $p<.001$).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대상 중 20대의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시에 20대의 이혼선택 가능성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0대의 경우 20대 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40대, 50대보다는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인 경우 이혼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

준 연구결과(홍백의 외, 2009)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생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337$, $df=2$, $p<.001$).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대상 중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을 보였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생존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홍백의 외, 2009)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교육수준이 여성의 이혼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Kalmijn et al., 2004), 여성의 교육수준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오지혜, 2015)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결혼 연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8.909$, $df=2$, $p<.001$). 조사대상 중 가장 짧은 결혼 기간을 가진 5년 이상 10년 미만⁷⁾의 집단이 〈그림 4〉처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가장 감소 하는 경향을 가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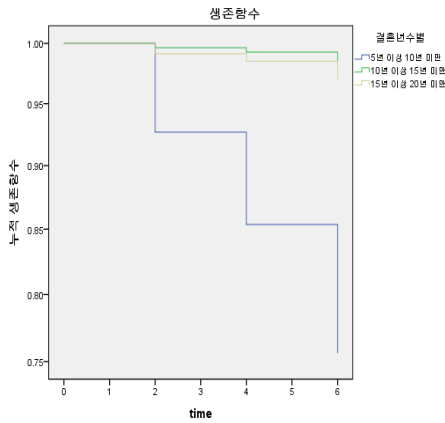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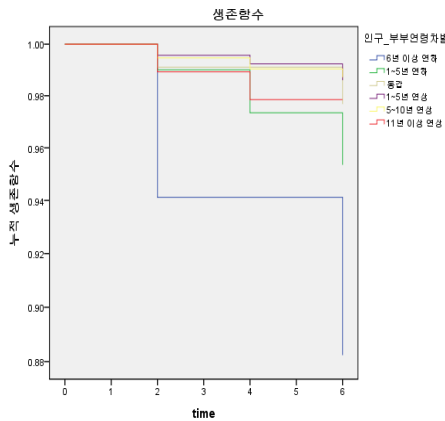
〈그림 3〉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

6) 본 연구 대상자인 이혼선택 집단 86명 중 6차 시기 이혼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세한 조사대상 구성은 3장 연구방법의 연구대상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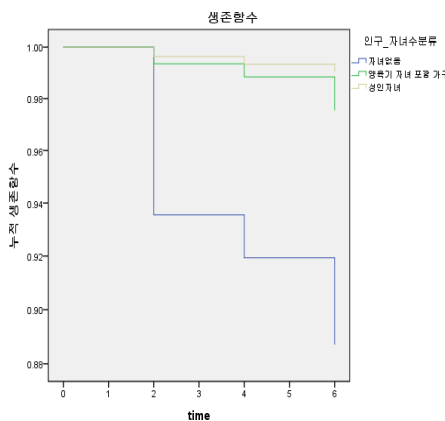
7) 결혼연수의 하위집단 구분은 5년 이상부터 시작한 이유는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 중 결혼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4〉 결혼연수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



〈그림 5〉 부부 연령차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추이



〈그림 6〉 동거자녀 유무와 발달단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추이

이는 동시에 이혼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혼 초 부부생활 초기 적응으로 인한 빈번한 부부갈등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이혼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김순영, 2018; Bruze, Svarer, & Weiss, 2015; Gottman과 Levenson, 2000)과 동일한 결과이다. 부부생활 초기 적응의 성공 여부가 결혼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결정함은 물

론 이혼 선택을 고민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부부연령 차이에 따라 결혼생활 변화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373$, $df=5$, $p<.001$).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중 남편이 6년 이상 연하일 경우가 가장 생존율이 낮았으며, 다음으로 1-5년 이하 연하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연하일 경우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여성이 느끼는 결혼 불안정성이 크며(김세현·이성희, 1989; 김은경, 1998), 부인의 연령이 남편보다 5년 이상 연상일 때에 부부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혼 위험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 (Teachman, 2002)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부간 연령차가 크고 남편의 연령이 여성에 비해 연상보다는 연하일 경우 이혼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동거 자녀 유무와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9.106$, $df=2$, $p<.001$).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시간경과에 따라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여성의 결혼생활 지속여부 결정과정에서 자녀의 존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 따라서는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자녀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혼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된 기존연구(이무영·이소희, 2003)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여성의 이혼선택에 자녀의 존재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은 양육부담과 노동시장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김혜영 외, 2005; 김혜영 외, 2008), 반대로 삶에 대한 동기와 의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문현숙·김득성, 2000) 향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여성의 이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의 이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각 요인들이 이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세 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위계적 회귀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각 요인별로 순차적으로 분석되면서 중

속변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든 독립변수가 투입되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실시하기 전 투입되는 독립변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개인적 요인을 투입하였고, 모형 2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3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모형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델 적합성⁸⁾을 검정한 결과 모형1(Chi-Square=135.81***, df=12), 모형 2(Chi-Square=243.79***, df=21), 모형 3(Chi-Square=258.48***, df=26)으로 나타나 모든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연령, 부부연령차, 종교 유무, 여성의 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 여부, 남편 경제활동 유무, 동거 자녀, 균등화소득 변수가 이혼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 선택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율⁹⁾은 0.8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이혼의 원인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홍백의 외, 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부 연령차가 남편이 연상일수록 이혼 선택 가능성은 0.91배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어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이인숙, 2002)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부인 연령이 남편보다 5년 이상 연상일 때에 연령이 비슷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Teachman(2002)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부 연령차와 이혼선택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연상, 연하 부부와 같은 부부연령 차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역동성 변화와 가족생활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관련 연구 주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1.8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가 있을 때 이혼발생이 낮아진다는 이무영과 이소희(2003)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국내 연구에서 종교와 이혼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적고, 유의미한 설

명을 찾기가 어렵지만(김미숙 외, 2005), 이혼결정에 종교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김진원, 2019) 추후 종교와 이혼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전업주부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일 경우 취업자일 경우보다 이혼 선택 가능성이 0.44배 감소하며, 남편이 일자리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혼선택이 2.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경제적 수입이 있을 때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거하는 자녀가 양육기 및 교육기 일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0.16배 이혼 선택이 감소하며,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는 0.2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존재와 발달단계에 따라 부부의 이혼 위험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Poortman & Kalmijn(200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무자녀 가족의 증가 현상과 자녀의 발달단계가 여성의 이혼선택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균등화소득¹⁰⁾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선택 가능성을 0.48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김성희, 2003; 이무영·이소희, 2003; Lee & Bumpass, 2008)와 일치한다.

모형 2는 개인적 요인에 가족적 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으로, 모형 1에서 분석결과 유의미하게 제시된 개인적 요인 중 남편 경제활동 유무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요인에서는 결혼생활의 느낌과 갈등대처방법 중 언어적·신체적 폭력 방법 사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첫째,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한 느낌을 가질수록 이혼 선택 가능성은 0.6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부 갈등대처 방법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혼 선택 가능성이 1.8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0)의 '2019년 상담통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혼사유가 폭력과 같은 '남편의 부당대우'라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강신성과 임왕규(2013)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에 대한 대립이 심할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Bodenmann & Cina(2008)의 연구결과 현재의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이 미래의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73.3%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볼 때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갈등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투입하였는데,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모형 2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추가된 모형 3의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족가치

8) 콕스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2 Log Likelihood, 전체지수(Overall score), 그리고 공변량을 투입하기 전과 후의 Chi-Square 변화량을 보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9) 콕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단위의 증가에 따라 종속변수의 위험률비(hazard ratio)가 몇 배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채구묵, 2018). 본 연구에서는 콕스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하지만 이혼을 위험으로 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율비에 대한 컷 제시 다음부터는 이혼선택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10) 균등화소득은 양적편포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 자연로그(natural log)를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관이 이혼 선택 가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이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이혼 선택 가능성이 1.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가족가치관을 가질 경우 1.92배 이혼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이 이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근 가족가치관과 이혼 가능성의 연관성을 입증해주는 연구(권복순·김태자, 2008; 유희정·이숙중, 2016)와 동일한 결과로 부부관계에서의 가족가치관의 영향력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부부간 가족가치관 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양성평등 이념의 확산이 전통적 가족규범과 충돌하면서 가족갈등, 부부갈등으로 나타나고, 이혼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광배희(2001)의 연구결과와 가족가치관이 사회변화에 따라 근대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통적 가족가

치관이 강한 문화적 규범으로 작동하여 우리의 가족생활과 태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김혜영(2001)의 연구결과를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다수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가족에 대한 관념인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 가족가치관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위치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이혼 의도를 촉진시키는 가족 갈등 상황에서의 현실과 본인의 가족가치관과의 격차는 더욱 혼란스럽고 복합적인 양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전통적 가족가치관 주요 문항 구성이 결혼은 필수이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가족에 대한 통념적 관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가족 갈등이 있을 때 여성이 어떻게 인식하며 대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

〈표 6〉 여성의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S.E.)	Exp(B)	B(S.E.)	Exp(B)	B(S.E.)	Exp(B)
개인적 요인	연령	-.15(.04)***	0.86	-.18(.04)***	0.84	-.17(.04)***	0.85
	교육수준(고졸=1)	.31(.44)	1.36	.41(.44)	1.5	.38(.44)	1.46
	교육수준(대졸=1)	-.53(.51)	0.59	-.09(.51)	0.91	-.12(.52)	0.88
	결혼년수	.01(.04)	1.01	.05(.04)	1.05	.04(.40)	1.04
	부부연령차	-.10(.04)*	0.91	-.11(.04)**	0.9	-.11(.40)**	0.89
	종교유무(있음=1)	.61(.24)*	1.83	.62(.24)*	1.86	.61(.24)*	1.83
	여성경제활동(실업자=1)	-.67(1.02)	0.51	-.62(1.02)	0.54	-.91(1.04)	0.4
	여성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1)	-.83(.26)**	0.44	-.67(.26)*	0.51	-.65(.27)*	0.52
	남편경제활동유무(일자리없음=1)	.92(.28)**	2.51	.49(.30)	1.64	.53(.30)	1.69
	동거자녀(양육자녀=1)	-1.83(.46)***	0.16	-2.05(.48)***	0.13	-2.13(.53)***	0.12
	동거자녀(성인자녀만=1)	-1.45(.57)**	0.24	-1.83(.58)**	0.16	-1.93(.61)**	0.15
	평균화소득	-.74(.17)***	0.48	-.44(.21)*	0.64	-.43(.22)*	0.65
가족적 요인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45(.08)***	0.64	-.47(.08)***	0.62
	남편에 대한 인식			-.47(.28)	0.62	-.55(.28)	0.58
	부부동반활동 수준			.10(.103)	1.1	0.08(.10)	1.09
	부부 갈등요인(경제문제=1)			-.32(.36)	0.72	-.23(.37)	0.8
	부부 갈등요인(자녀양육문제=1)			-.15(.55)	0.86	-.13(.54)	0.88
	부부 갈등요인(기타=1)			-.23(.33)	0.79	-.13(.34)	0.88
	부부 갈등대처방법_회피			-.09(.15)	0.92	-.06(.14)	0.94
	부부 갈등대처방법_합리			.14(.14)	1.15	.13(.15)	1.14
부부 갈등대처방법_폭력			.62(.18)***	1.85	.52(.18)**	1.69	
심리 사회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6(.15)	1.06
	주관적 경제상태					.04(.17)	1.04
	가족가치관_전통					.66(.25)**	1.93
	가족가치관_개인					.65(.33)*	1.92
	가족부양인식					-.39(.30)	0.68
	-2 Log Likelihood	1218.95		1136.07		1125.06	
	Df	12		21		26	
	Chi-Square	135.81***		243.79***		258.48***	
	Chi-Square 변화량	119.87***		82.88***		11.01*	

* $p < .05$, ** $p < .01$, *** $p < .001$

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가족가치관이 실제 이혼선택 실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여성의 가족가치관이 이혼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경로모형 분석이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여성의 이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모두 이혼선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였을 때, 각 요인의 변수들이 이혼선택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력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이혼 선택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증명하였으며, 향후 본 분석결과와 연관된 의미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부부관계와 가족생활 연구에의 적용을 통해 결혼생활과 이혼선택 연구 분야가 양적, 질적 모두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고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시간과 요인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명표분석을 시행한 결과, 결혼생활 지속을 나타내는 누적 생존율이 조사대상자의 이혼 선택으로 인해 시간경과에 따라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가장 마지막 조사시점인 6차 시기의 누적 생존율이 가장 많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연수, 부부연령차, 동거자녀 변수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중 20대의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을 보였으며, 대학교 졸업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생존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수에서는 조사대상 중 가장 짧은 결혼기간을 가진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가장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남편이 6년 이상 연하일 경우가 가장 결혼생활 지속가능성인 생존율이 낮았다. 동거 자녀 유무와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결혼생활 변화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시간경과에 따라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양육기 및 교육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결혼생활 지속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각 요인들이 이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 파악한 결과 모든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연령, 부부연령차, 종교 유무, 여성의 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 여부, 남편 경제활동 유무, 동거 자녀, 균등화소득 변수가 이혼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분석결과 유의미하게 제시된 개인적 요인 중 남편경제활동 유무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요인에서는 결혼생활의 느낌과 갈등대처방법 중 언어적·신체적 폭력 방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차원의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모형 3에서는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모형 2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추가된 모형 3의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족가치관이 이혼 선택 가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해 여성들이 결혼생활 중에 이혼을 선택하는데 작용하는 영향 요인들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결혼생활과 이혼결정에서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종합적 의의를 먼저 제시하고 한다.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대상자들의 요인을 밝혀낸 중단 연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 관점에서의 결혼생활 변화를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이혼연구들은 이혼결정 요인들을 밝혀내는 질적연구(김지혜, 2008; 옥선화 외, 2006; 이무영, 2003)나 이혼 후 적응을 파악하는 연구(문정화 외, 2014; 문현숙·김득성, 2000; 박현정, 2012; 송옥, 2012)등 당사자들의 이혼 전·후 삶에서의 해당 시점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 결혼생활 과정 동안 여성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혼생활 변화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제한점을 넘어서는 차별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으로 이혼을 바라보며 이혼 이후 당사자의 바람직한 적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종결되기 전부터 개입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혼여성에 대한 정책은 사후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김진원, 2019),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혼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개입에서도 이혼을 사회문제로 규정해버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일방적인 이혼 예방적 정책만이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논

의가 전제된 현 제도의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혼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주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게 기본적인 자녀양육 수행조차 힘들게 만드는 생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균등화 소득이 이혼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선택의 주요 요인일 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이혼에 대한 경제적 공적 서비스 지원은 한부모 가정 정책에 포함하여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등의 직접적인 빈곤 구제를 위한 사후적 선택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복지로, 2020). 긴급생계비 지원과 같은 사후 보완적 정책들도 서비스 대상자 조건 제한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혼한 여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같은 제도를 신청하는 이혼 여성의 지급성을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인지하고 절차상 제약을 완화하여 이혼 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실제적인 제도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 갈등 대처방법 중 회피와 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갈등대처방법을 사용할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선택에 있어서 부부갈등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부부상담시 부부의 기존 갈등 대처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폭력의 경우 전통적인 이혼의 원인이면서, 현재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이혼사유임을 볼 때(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부부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한 현재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 부부교육 및 신혼기 부부교육에서 부부갈등 대처방법과 가족생활주기별로 가족의 환경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가족갈등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의 프로그램에서도 가족에서의 갈등관리, 가족의 소통을 촉진시키는 문화활동과 같은 내용이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부부와 가족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기가 가정 내 발생하기 전부터 가족구성원들과 가족체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체계에 연결된 주요 환경들을 가급적 다양하게 포괄한 가족복지 실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복지는 복지의 한 부분만이 아닌 모든 영역 실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복지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과 결혼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현 교육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족과 결혼 가치관

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성인이 되어 실제 결혼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중요해지는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여기고 이에 대한 결과도 개인 탓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가족복지 영역에서의 역할 소홀이며 예방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의 복지 관점과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원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 차원의 발달주기 상에서의 교육을 통한 가족과 결혼을 주제로 구성된 논의의 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형성된 가족의 틀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특성상 패널자료에서 구성된 변수들을 활용해 독립변수를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이혼여부를 확인할 때 별거집단을 제외한 이혼을 선택한 사례만을 선정하여 연구결과의 명확성을 도출하였는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패널자료 특성상 이혼을 선택한 집단의 사례수가 전체 대상자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이혼선택 집단의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횡단 연구에 비해 이혼선택 요인에 대한 변화 경향과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당 패널자료 설문구성이 갖는 특성상 3차 시점부터 6차 시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적 긴 연구기간에서의 자료 활용이 가능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중단 연구의 특성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가지 측면에서의 이혼선택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로써 갈등상황에서 부부 양측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별에 속한 각 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의 패턴과 이혼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혼선택 요인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

보는 연구는 현재 발생하는 한국의 가족의 변화양상과 맞물려 실천적,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석임 · 전희정(2013). 기혼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주 여부와 빈곤여부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3, 161-188.
- 2) 장신성(2014).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태체계 요인이 황혼이혼 및 범죄유발 동기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장신성 · 임왕규(2013).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78-192.
- 4) 공성숙(2008).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8(4), 550-560.
- 5) 광배희(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광배희(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권복순 · 김태자(2008). 2,30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제 1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 8) 김정순(2010).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4, 139-166.
- 10) 김명자 · 권오실(1996). 부부간의 갈등정도과 갈등관리방법 연구: 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인 부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11(1), 3-22.
- 11) 김문조(2016). 디지털 시대, 일상의 재구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15.
- 12) 김미숙 · 원영희 · 이현송 · 장혜경(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김민녀 · 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4), 655-671.
- 14) 김선아 · 남경아 · 정향인(2006).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2), 179-186.
- 15)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16) 김세현 · 이성희(1989). 도시 주부의 결혼 불안정성에 관한 일연구. 생활문화연구, 3, 211-229.
- 17) 김소이(2018). 기혼자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관계 특성 및 출산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김소진(2009).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29(3), 1087-1105.
- 19) 김수완(2010).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여성학, 26(1), 35-67.
- 20) 김순안 · 김승용(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109-129.
- 21) 김순영(2018). 혼인 · 이혼 패턴의 시간적 변화 추이와 요인 규명.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22) 김승권(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246, 1-8.
- 23) 김승권 · 전광희 · 김민자 · 이연주 · 김유경 · 서문희 · 조애저(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과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4) 김영란(2017). 중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족건강성 및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3), 471-492.
- 25) 김영희 ·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26) 김영희 ·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27) 김예리(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김유경 · 이진숙 · 이재림 · 김가희(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9) 김은경(1998). 결혼 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41-52.
- 30) 김은정(2019). 여성의 이혼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김은정 · 강갑원(2017). 이혼여성의 이혼 결심까지의 심리적 과정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83-196.
- 32) 김정옥(2011).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부부를 위한 치료 대상자 연구. 대한가정학회, 49(10), 91-101.
- 33) 김정운 · 이장주(2003). 여가와 삶의 질: 중년부부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1-10.
- 34) 김지혜(2008). 중년기 이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5) 김진원(2019). 이혼 전 · 후 가구소득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발달궤적에 대한 중단 연구: 이혼자와 결혼유지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6) 김현동 · 김명희(2011). 기혼여성 직장인의 가치관에 따른 직장가정의 긍정적 전이과정 탐색. 여성연구, 2, 33-67.
- 37)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김혜영(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한국청소년연

- 구, 12(1), 79-105.
- 39) 김혜영(2006). 한국가족문화의 재고-친밀성의 부족과 허약한 가족관계. 보건복지포럼, 115, 23-34.
- 40) 김혜영 · 김상돈 · 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1) 김혜영 · 이은주 · 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5-51.
- 42) 김혜영 · 변화순 · 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43) 노진숙(2013). 기혼자들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 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4) 문정화 · 김은량 · 박양균 · 김미라(2014). 초기노년기 이혼여성의 이혼 후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혼초기 2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693-713.
- 45) 문현숙 ·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1-22.
- 46)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5-29.
- 47) 박소진(2016).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 연구-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자료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8) 박수현(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박은옥(1997). 기혼취업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1), 80-92.
- 50) 박현정 (2012). 이혼 · 별거 전후 소득과 생활만족도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1) 박현정(2013). 이혼 · 별거자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연구. 지역과 세계, 37(2), 79-102.
- 52) 박현정 · 정익중(2012). 이혼 · 별거 전후의 소득변화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논총, 28, 203-232.
- 53) 변화순(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젠더리뷰, 3, 122-123.
- 54) 복지포(2020).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한부모. 2020년 5월 15일 검색. <http://m.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ist.do?searchIntClId=08>
- 55) 성낙일 · 조동혁(2015). 우리나라 시 · 군 · 구 이혼율 차이의 사회 · 경제적 결정요인: 실증분석. 응용경제, 17(1), 99-134.
- 56) 성정현 · 양심영(2006).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8(2), 139-163.
- 57) 송경일 · 최중수(2013).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서울: 한나래.
- 58) 송욱(2012).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9)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0) 심수명(2006). 한국 사회의 이혼 증가 원인 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7(7), 171-206.
- 61) 안윤숙 · 김홍주 · 이현진 · 하영진(201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1), 157-185.
- 62) 오지혜(2015).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1), 233-270.
- 63) 옥선화 · 남영주 · 강은영(2006).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23-235.
- 64) 유계숙 ·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23-235.
- 65) 유희정 · 이숙중(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66) 이무영(2003). 이혼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7) 이무영 · 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68) 이선미 ·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69) 이옥수(2017).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0) 이인숙(2002).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82-493.
- 71)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2)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73) 이현송 (1997). 이혼의 인구 ·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2, 69-90.
- 74)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161-185.
- 75) 정기원(2004).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7(1), 57-80.
- 76) 정민자 · 노현미 · 하래남(2015). 연령대에 따른 재판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의 이혼원인에 관한 분석. 가족법연구, 29(1), 389-409.
- 77) 정윤경 · 최지현(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31-353.
- 78) 정진영(1993).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

- 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 81-108.
- 79) 조성희(1999). 실직이후 부부의 이혼가능성. *가족과 문화*, 11(2), 25-45.
- 80) 조유리 ·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81) 채구목(2018).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경기도: 양서원.
- 82) 최민 · 임다정 · 권지혜 · 김민영(2019).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의 우울과 남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이에 부부 동반 활동 빈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94-294.
- 83) 최석만 · 우실하 · 최봉영 · 홍승표 · 장윤수 · 이태훈 · 이영찬 · 유승무 · 이재룡 · 국민호 · 이현지 · 오세근(2006).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84) 최혜경 · 노치영(1994). 기혼 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1-272.
- 85) 통계청(2020). 2019년 혼인 · 이혼통계.
- 86) 한경혜 · 김영희(1995).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논집*, 6, 103-128.
- 87)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0). 2019년도 상담통계.
- 88) 홍백의 · 박은주 · 박현정 · 박진(2009).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307-328.
- 89) Amato, P. R. &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3), 612-624.
- 90)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69-1287.
- 91) Bodenmann, G. & Cina, A. (2008). Stress and coping among stable-satisfied, stable-distressed and separated/divorced Swiss couples: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4, 71-89.
- 92) Bruze, G., Svarer, M. & Weiss, Y. (2015). The dynamics of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 33(1), 123-170.
- 93) De Graaf, P. M. & Kalmijn, M. (2006). Change and stability in the social determinants of divorce: A comparison of marriage cohorts in the Netherland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5), 561-572.
- 94) Driver, J. L., Tabares, A., Shapiro, A., Nahm, E. Y. & Gottman, J. M. (2003). Interactional patterns in marital success and failure: Gottman laboratory studie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95) Fine, M. A., Ganong, L. H. & Demo, D. H. (2010). Divorc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In S. J. Price, C. A. Price, & P. C. McKenry (Eds.), *Families &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96)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97)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98)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99) Gottman, J. M. & Driver, J. L. (2005).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and everyday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 63-78.
- 100) Heaton, T. B. & Blake, A. M. (1999).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25-45.
- 101) Kalmijn, M., De Graaf, P. M. & A. R. Poortman. (2004). Interactions between Cultur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Divorce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75-89.
- 102) Lebow, J. I. (2015). Separation and divorce issues in couple therapy. In Gurman, A. S., Lebow, J., & Snyder, D. K.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445-4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03) Lee, Y. J. & Bumpass, L. (2008).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ivorce/separation in South Korea: A focus on wife's current and desired employment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nd Society*, 37(2), 117-139.
- 104) Patel, R. M. (2000). Understanding the functional family: Alternative family forms. In Glick, I. D., Berman, E. M., Clarkin, J. F., & Rait, D. S. (Eds.), *Marital and family therapy* (4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105) Poortman, A. R. & Kalmijn, M. (2002). Women's labour market position and divorce in the Netherlands: Evaluating 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work effec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8, 175-202.
- 106) Roach, A. J., Fraize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3), 537-546.

107) Teachman, J. D.(2002). Stability across cohorts in
divorce risk factors, Demography, 39, 331-352.

- 투 고 일 : 2022년 06월 22일
- 심 사 일 : 2022년 07월 20일
- 계 재 확 정 일 : 2022년 08월 17일